

# A. J. Toynbee의 文明論과 圖書館의 歷史

## —Renaissance 觀과 圖書蒐集 運動을 中心으로—

孫 蓮 玉\*

### 〈目 次〉

I. 序 論	運 動
II. A. J. Toynbee의 文明論의 概要	1. 言語·文藝的 르네상스의 3段階
1. 史觀의 두가지 原理	2. 中國文明에 있어서의 圖書蒐集
2. 文明의 段階의 比較	3. 古代東方 및 비잔틴文明에 있어서
3. 文明의 단남의 比較	의 圖書蒐集
III. 그의 Renaissance 觀과 圖書蒐集	IV. 結 論

### I. 序 論

圖書는 文明社會에서 단 生産되는 物理的藝術品이라 한다. 人類가 야단의 상태에서 文明의 단계로 비약한 이후 各文明卷마다 독특한 양식의 圖書館이 세워지고, 國家나 個人的 힘으로 수 많은 創作과 圖書가 수집 整理되어 人類의 永遠한 遺産으로 保存 계승되어왔다. 때문에 장구한 역사속에서 圖書館과 社會변천은 불가분의 關係를 유지하면서 相互 影響을 주고 받으면서 變化발전하여왔고, 또한 한 文化圈內의 文化의 모습을 圖書館을 통해서 發見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筆者는 평소 A. J. Toynbee의 文明論에 共感하면서 독특한 그의 歷史觀을 읽어오던중 그의 特異한 르네상스論속에서, 한 社會의 文化的인 所産인 圖書館의 發展을 歷史的인 관점에서 究明하는데 하나의 해답을 얻게되지 않을

\*경북대 도서관학과 전임강사

까 믿게 되었다.

A. J. 트인비의 필생의 大著 “歷史의 研究”(A Study of History)<sup>(1)</sup>의 第9卷속에서 전개되는 그의 르네상스論은 이제까지의 通念인 西歐中心의 르네상스觀과는 判異하다. 그는 르네상스를 「時間的 次元의 文明의 만남」(Contacts between Civilizations in time)<sup>(2)</sup>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다시 “위기에 처한 子文明이 對決의 方法에 應한 나머지 母文明에 도움을 청하고 그 권위를 빌기 위해서 母文明의 한 部分을 再生시키는 「亡靈의 招魂」(Evocation of Ghost)<sup>(3)</sup> 現象이라 규정하였다.

따라서 Toynbee 에 의하면 르네상스는 미술이나 문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政治理念, 법률제도, 종교적 이상에 있어서도 母文明의 再生인 르네상스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이러한 현상은 서구문명에만 일어난 현실이 아니라 他文明 즉 비잔틴, 중국문명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트인비에 의한 「時間的 次元의 文明의 만남」속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계 현상의 르네상스를 ① 政治思想, 理想, 制度의 르네상스(Political Ideas, Ideals, Institution), ② 法組織(System of Law), ③ 哲學(Philosophies), 그리고 ④ 言語와 文學(Languages and Literatures)르네상스로 구분하고 있다.<sup>(4)</sup>

이와같은 實例는 西歐文明의 탄생초기에 Roma 제국을 제현시키려고한 “신성로마제국”의 이념이나, 비잔틴 文明이(東 Roma 제국)이 “제2의 로마”임을 자부한것도 사실은 「政治的 르네상스」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잔틴제국(東 Roma 제국)에서 특히 실향던 우상배척운동도 시리아적 전통의 再生으로서의 「宗教的 르네상스」로 볼 수 있고, 西歐社會에서 Latin 語 사용과 中國文明圈에 속하는 韓國이나 日本이 오늘날까지 母文明의 死語인 漢字를 쓰고 있는 일이나 古典을 수집하고, 주석 비판해석을 가하고 그기에 따른 사전 및 백과사

(1) Toynbee, Arnold Joseph. A Study of History. London, Oxford Univ. Press, 1972.

(2) 上掲書. p.1.

(3) 上掲書. p.124. (Ref The Process of Evocation)

(4) 上掲書. pp.7~48.

전등을 편찬하는 것도 言語와 文藝의 르네상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5)</sup>

筆者가 이 방대한 토인비의 대작에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그가 구분한 르네상스 중에서 「言語와 文學에 의한 르네상스」部分이다. 우선 本論인 그의 르네상스觀을 밝히기 위하여 文明論의 概要를 밝힌다음 本연구가 의도한 토인비의 르네상스觀인 文明의 時間的 次元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言語 및 文學的 르네상스의 3단계 즉 母文明(古典)의 쇠퇴, 수집과정, 주석, 비판을 위한 과정,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古典文의 復活을 위한 模作活動에 대해서 토인비가 지칭한 中國文明과 비잔틴文明권의 다섯 황제들을 중심으로 概觀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영고성쇠의 연속적인 대역사의 흐름속에서 한 제왕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지식단으로 전후 文明論을 이해한다는 것도 제한된 자료와, 필자의 역사연구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거니와 또한 토인비가 제시한 文藝的인 르네상스를 도서관학적인 입장에서 고찰하기에는 너무도 그 규모가 방대하고 또한 접근용이한 문헌이 쉽지않기 때문에 큰 모험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本연구를 통해서 다만 토인비의 역사체계를 통한 文明論的인 관점에서 도서를 중심으로한 도서관의 발전과정을 함께 고찰한다는 것에 그 意義를 두고자 한다.

## Ⅱ. A. J. Toynbee의 文明論의 概要

### 1. 史觀의 두가지 原理

토인비의 대표적인 역작 “A Study of History”(전12권)속에 전개된 역사론의 기본적인 原理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역사연구의 단위가 국가나 民族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한 보다큰 社會體로서의 文明이다. 즉 世界史는 民族이나 國家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단위는 文

(5) 李洋基. “A. J. Toynbee Renaissance 觀,” 哲學會誌 6輯, 嶺南大學哲學科 研究室, 1975. p.11.

명이다. 이렇게 文明단위로 역사를 고찰하는 이유는 歷史가 政治史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기본적인 토대가 文化史 내지 社會史임을 알고 特定한 文化분포와 그 特徵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리켜 본다면 10세기 이상 계속되어온 文化 통일체가 地球위 이곳 저곳에서 발견된다. 王朝은 바뀌어도 또한 주도권을 장악한 民族은 교체되어서 정치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도 한번 탄생한 동일文化는 여러모로 변용은 하면서도 일정한 개성을 지니면서 他文明과 구별된다. 古代를 돌이켜 보면 ‘아테네’나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자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문명이란 큰 전체의 한 일부로서 그리스 문명을 공유하고 그리스 사회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다른 한 原理는 文明이 並行하고 있으며 同時代的이라는 것이다.<sup>(6)</sup> 이 原理는 1941년 일차대전중 토인비가 Oxford大學에서 ‘투키디데스’의 전사(戰史)<sup>(7)</sup>를 읽다가 그당시 그리스가 체험했던 것과 똑같은 체험을 오늘날 우리가 겪고있다는 사실을 수 많은 사례속에서 발견했다. 토인비는 ‘투키디데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이 同一함에 놀랐다. 2천년이전의 그리스란 異種의 社會體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現代 西歐社會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과 同一함을 깨달았다. 즉 文明이 좌절되어가고 있다는 점이 그때와 지금이 동일하며, 社會가 內外上下로 분열되고 투쟁이 격화되어간다는 점이 동일했다. 즉 좌절이라는 위기에 있어서는 ‘투키디데스’의 과거가 바로 ‘토인비’의 現在인 것이며, 지난날 그리스가 挫折에 직면했듯이 오늘날 西歐社會가 그와같은 挫折을 겪고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洞察을 바탕으로 토인비는 어느 한시기만이 同時代的인 것이 아니라 文明의 순과정의 단계별로 同一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文明이 서로 異質인 것이면서도 성장, 좌절 해체라는 각단계가 서로 並行함을 알게 된것이다. 때문에 그에게는 연대적인 區別이나 거리에는 별

(6) Sommervell, D.C. Abridgement by Sommervell. A Study of History, London, Oxford Univ. Press, 1972. p.1.

(7) 투키디데스(Thucydides) BC460~398(?) 아테네의 역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종군. 프라시 다스 싸움에서 패한후 망명. 엄정한 비판정신과 통찰력을 가졌으며 저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문제가 있어 보였고 2500년이란 시간적인 거리도 단번에 뛰어넘을수가 있었다.

이 두가지 基本原理를 바탕으로 그의 歷史觀은 “단계·비교론”(cycle)과 “탄남의 비교론”(Encounter)으로 양분된다. (8)

## 2. 文明의 段階의 比較—Cycle(사이클)理論

단계의 비교론은 한 文明이 挑戰(Challenge)에 대한 賢明하고 창조적인 應 答(Response)으로 탄생하면 성장(Growth), 좌절(Breakdown), 해체(Disintegration)의 3단계를 거치고 사멸(Dissolution)하게 된다는 理論이며 또 하나는 Encounter(文明의 해후 접촉, 탄남)의 比較論이다.

토인비의 文明의 체계를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 (9)

〈表 1〉 토인비의 文明의 段階表

文明의 段階

—誕生 Genesis	{ 獨立적 탄생…(先行文明 없음, 이집트, 슈메르, 앗카트, 에게, 인다스, 中國, 中美, 안네스文明) 相續적 탄생…(그리스, 시리아, 인도, 西歐, 아프리카, 正敎그리스도敎, 이슬람文明) 衛星文明은 除外.
—成長 Growth	…創造의 少數者를 大衆이 模倣하여, 上·下, 內·外의 龜裂이 없다.
—挫折 Break-down	…全國的인 動亂… { 支配의 少數者의 發生 內·外 프로레타리아트 發生
—解體 Disintegration	…三者鼎立… { 1. 支配의 少數者—世界國家 2. 內的 프로레타리아트—高級宗敎 3. 外的 프로레타리아트—戰鬪團體
—消滅 Dissolution	…(未開社會로 전락 他文明에의 同化

여기에서 文明의 成長단계란 것은 창조적 少數者(Creative Minority)의 영도에 의해서 현실적인 도전에 대해서 훌륭하게 應答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대중은 이 창조적인 지도자에 模倣되어서 그 應答에 자동적으로 模倣(Mim-

(8) 李洋基. “토인비와現代,” 叢刊문고 6. 대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2. p. 175.

(9) 山本新. トインビー. 人類の知的遺産, 74. 講談社, 1978. p. 59. in 이양기. Toynbee의 Renaissance 觀. p. 12.

esis)해 간다. 그러나 人間의 創造力에는 한계가 있는 法이다.

시간과 더불어 소수자의 創造力이 고갈되고 대중은 이들의 용전에 공감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영도자는 그들을 힘(Power)으로 服從을 강요하여 지배적 소수자(dominat minority)로 변질한다. 창조적일수 없기 때문에 대중의 신임을 얻기 어려우니 힘에의한 지위 유지에 급급하니 上下·內外로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한 文明은 지배적 소수자, 內的 프로케타리아트(Proletariat)<sup>(10)</sup>와 外的프로케타리아트<sup>(11)</sup>로 분열되니 이것이 文明의 挫折期 現象이다.

이 좌절기가 끝나고 해체가 되면 지배적 소수자는 군사적 폭력으로 “世界國家(universal state)”를 형성하고, 內的프로레타리아트는 심화되는 精神的인 고뇌속에서 얻어진 敎訓으로 몇개의 高級宗敎를 낳게 된다. 그리고 外的인 프로레타리아트는 변경의 地理的인 利점을 이용하여 전투단체를 형성하여 正面으로 對立하게 된다.

文明이 成長을 中斷하면 內部가 분열하여 동란기를 맞게 되는데 諸國이 相爭하는 전국시대의 양상으로 400년을 지새우다가 強國의 하나가 여타의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고 그 文明을 統合하여 世界國家를 이루게 된다. 그리스 世界에서는 로마제국이, 中國文明에서는 漢帝國이 좋은 例가된다.

토인비는 이 世界國家의 성립을 훌륭한 것으로 보지않고 이것의 성립과 함께 文明이 해체를 맞이한다고 본다. 즉 文明의 해체란 文明이 지배적소수자의 世界國家와 內的 프로레타리아트의 고도종교와, 外的프로레타리아트의 전투단체로 크게 分裂된 現象을 가르킨다.

世界國家는 거창한 外觀과 堂堂한 위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10) Toynbee의 Proletariat 개념: ① 내적프로레타리아트( 이들은 펜로폰네소스전쟁이나 한니발 전쟁과 같은 동란기로 인해서 조상에서 이어받은 지위와 재산을 잃고 또는 질병 등으로 전통적 시민생활을 벗어나 유린화된 사람들이 중심이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속에 존재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그것에 속해 있지 않은 집단.

(11) 외적 Proletariat: 한 文明이 창조적 소수자가 지배적 소수자로 전환될 때, 지배적 소수자에 대한 반항내지 자위책(自衛策)으로 생겨난다. 이들은 그외부에 살고있지만 文明의 利점은 만고 있었다. 그러나 文明의 창조적 소수자가 지배적으로 전락하면 이들 민족들은 자위수단으로 힘 모아 전투단체를 만들어 침입한다.

는 공허하여 황제숭배만을 강요할뿐 일반대중에게 참다운 만족을 줄수가 없다. 정신적으로 기아상태의 계급은 지배층의 황제숭배와 같은 이데올로기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高度宗教에 매혹되어 간다. 이와 같은 현상이 점차 상하계급으로 전파되니 國教로 까지 인정을 받게 되니 이것이 바로 토인비가 말하는 世界教會(Universal Church)이다. 그러나 이 世界國家(Universal State)는 명맥이 길지못하니 비록 政治적으로는 승리하였음에도 정신적으로는 패배한 것이니 곧 멸망하게되며 이 世界國家의 단계를 끝으로 文明은 死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外的프로레타리아트인 蠻族(그리스文明의 경우는 게르만족)이 국경을 넘어 民族移動을 기시하여 제국의 시체를 침식하니 이때가 그들의 전투단체가 도량하는 英雄時代가 된다. 낡은 文明은 사멸했으나 이들만족은 유일한 정신적 支柱인 世界教會(로마카토릭)에 매료되어 드디어 改宗하게되니 이로써 다음의 새로운 文明이 탄생하게 된다.

이 세계교회의 歷史上 意義는 구 文明과 새로 탄생하는 文明의 架橋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즉 구帝國의 영토속으로 침투, 정복자인 外的프로레타리아트도 이 세계교회로 改宗되고 이改宗을 통해서 사멸해가는 구文明의 文化的 유산을 섭취하면서 새로운 文明을 창조하게 된다.

이 高度宗教를 가운데 두고 사멸한 母文明과 이제 탄생할려는 子文明이 시간적으로 겹쳐서 접촉하게 된다. 이와 같이 世代를 달리하는 두 文明이 世界教會를 中心으로 시간적으로 겹치는(overlap) 文明의 계승방법을 토인비는 親緣(母子) 關係(Apparentation-and-affiliation)에 의한 「時間的 만남」(Contacts in time)<sup>(12)</sup>이라 하였다.

### 3. 文明의 「만남」(Encounter) 比較

(12) Toynbee, 前掲書, v.9, p.4.

〈表 2〉 토인비의 文明의 만남<sup>(13)</sup>

文明의 만남	
—空間的인 만남...	{ 孤立—유대人, 티벳트, 鎖國 등 流入—그리스化, 西歐化, 中國化, 이슬람化, 離別
—時間的인 만남...	{ Renaissance...子文明에 의한 母文明의 再生 母·子關係...相續의 誕生

文明과 文明의 「만남」(Encounter)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空間的 次元에 있어서의 만남(Encounter in Space)이고 다른 하나는 時間的 次元에 있어서의 만남(Encounter in time)이다. 위의 도표 2.에 처를 후자는 다시 「母子關係」와 「프레상스」로 양립된다.

空間的 次元의 만남이란 현존하는 제 문명이 특정한 지역에서 서로 만나 영향을 주고 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부분 군사적인 정복에 의해 한 文明圈이 확대되어 타문명권에 속하던 지역내에서 그 문명과 접촉하여 문화의 변용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역사적인 실례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10년에 걸친 동방원정으로 그리스문명을 시리아, 이집트, 인도 등으로 전파, 이들 제 文明과 접촉 Hellenism化 한 것이나, 오늘날의 西歐文明이 全世界로 확산되는 것이 역사상 가장 큰 規模의 文明과 文明의 空間的인 만남이라 할 수 있다. 이때 征服당한 文明쪽으로 征服한 文明이 흘러 들어가는 流入現象이 일어난다. 이때 그 流入되는 異質文明을 거부하고 자신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게되고 그것을 신속하게 流入중단을 시키지 못할때는 연쇄반응의 現象을 일으키게 되고 드디어는 外來文明 全部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文明의 空間的인 邂逅에서 토인비가 중요시한 것은 高等宗教의 탄생이었다. 高等宗教를 낳게 한 만남이란 遠征과 征服의 연속이었다. 승리한 文明이 이 접촉에서 정신적으로 높은 창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한 편 文明이 패배한 결과로 겪어야 했던 시련과 고뇌속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 결과로 高度宗教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종교는 최

(13) 山本新, 前掲書, p.59 in 이양기, 前掲書,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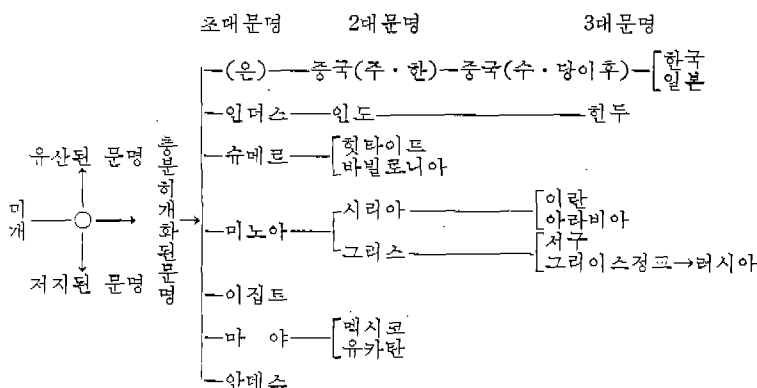


초에는 하층민의 특허품일뿐 상층계급과는 별관련이 없었다. 이리하여 世界 敎會를 사이에 두고 사멸한 母文明과 새로 태어나는 子文明이 時間的으로 접촉을 갖게 된다. 사멸한 文明과는 空間的으로는 만날수 없고, 공백기에는 文明이 존재하지 않으며 母文明은 죽은채 아직도 子文明은 탄생하지 아니하였으니 空間的인 접촉은 불가능하며 母子文明의 만날길은 「時間의 차원」에서만 가능했다.

文明의 時間的 次元의 만남이란 文明의 母子關係에 의한 상속적인 만남과, 時間을 사이에 두고 子文明과 母文明의 만남인 르네상스가 있다.

상속에 의한 母子關係의 만남이란 토인비는 각 文明을 3대로 나누어 현존하는 모든 文明이 모두 제3대 문명이며, 이에 선행하는 양대의 文明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西歐文明의 경우는 그리스문명(제2대 文明)이 母文明이며 이 그리스 文明의 先行文明이 미노아 문명(초대문명)이다. 역사상으로 초대 뿐인 문명은 이집트문명과 안데스文明 뿐이며 그밖의 모든 文明은 2대 또는 3대에 걸치고 있다. 이 제2대 文明이 제3대 文明으로 계승되는 과정에서 母文明과 새로 태어나는 子文明사이에 시간적 만남이 일어난다. 이 文明의 만남의 關係가 바로 母子關係 즉 상속의 만남이다. 토인비가 시간적 만남의 하

〈表 3〉 토인비의 3대 文明表<sup>(14)</sup>



(14) 山本新, 上掲書, p. 58. in 이양기, 토인비와 現代, 前掲書, p. 102.

나로 보는 「르네상스」도 이 제2대 文明과 제3대 文明사이에서 생긴것이며 同一文明의 과거를 소급하여 재생시키려는 복고주의 (Archaism)<sup>(15)</sup>와는 달리 子文明이 母文化의 망령은 불러내는 형상이 르네상스이다. 죽은 文明과는 空間적으로 만날수가 없기 때문에 時間的次元에서가 아니면 수세기 공백기를 사이에 두고있는 母·子文明이 상봉할 수 없다. 文明의 상속 내지 계승이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西歐의 文明이 그리스文明을 계승하고 그리스文明이 크레타文明을 이어받는 것은 朝鮮文明이 漢文明을 계승한 것과 같이 확실한 사실이다. 토인비는 이 親緣關係라는 母子文明의 개념으로 文明의 계승, 상속이라는 사태를 非連續인 연속으로서 사실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關係의 설정으로 토인비는 文明의 世代論과 르네상스論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축출한 23개의 文明中에서 에집트와 안테스 文明만을 除外한 21개의 文明은 모두가 母·子關係로 얽혀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16)</sup>

### Ⅲ. Toynbee의 Renaissance 觀과 圖書蒐集 運動

앞장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이때까지 적용되어온 Renaissance 개념을 文藝의 復興이란 뜻으로 넓게는 문예와 美術의 부흥운동을 가르키며 좁게는 西歐末期(1275~1475) 北·中部 이태리에서 古代그리스의 文學과 美術을 재생시키는 現象을 뜻하는 말이었다.<sup>(17)</sup> 그러나 토인비에 의한 역사연구 第10권에서 밝힌 그의 르네상스觀에 의하면 이때까지 전통적인 르네상스觀의 잘못된 점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이태리 르네상스의 政治的인 국면을 고찰하지 못한점과 두번째는 同一한 時期에 西歐의 他地域에서 그리고 기독교 세계의 다른 지방에서도 그리스古代文化 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

(15) Toynbee. 前掲書. p. 49.

(16) 이양기. 前掲書. p. 122.

(17) Toynbee. A. J. A Study of History, a new edition revised and abridged by the author and J. Caplan. London, Oxford Univ. Press, 1972. p. 431.

한점, 그리고 세번째는 中國文明이나 회교도 文明에서도 母文明의 르네상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점을 說明하고 있다. (18)

序論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토인비는 르네상스를 時間的次元의 文明의 만남 (Contacts between Civilizations in time)이라 규정하고 따라서 이 時間的인 文明의 만남에는 두가지 現象 즉 文明의 母子關係에 의한 相續的인 만남과, 時間과 공백기를 사이에 두고 子文明에 의한 母文明의 再生 현상인 르네상스를 들고있다. 이와 같은 現象을 토인비는 子文明에 의한 母文明의 亡靈을 招魂(Evocation of Ghost)하는 것이라 보고 이는 위기에 처한 子文明이 對決의 方法에 궁한 나머지 母文明의 도움을 청하고 그 권위를 빌리기 위해서 母文明의 한 部分(學問體系, 政治制度 等)을 재생시키는 현상이라 설명한다. (19)

토인비에 의하면 母文明의 망령을 招魂한 諸現象의 르네상스가 여러분야에서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지만 本章에서는 言語와 文藝에 對한 르네상스를 조명해 보고져 한다.

그에 의하면 言語와 文學(Languages and literatures)의 르네상스는 前代 文明에 속하던 古典을 復活시키는 것이다. 古典이란 言語로 기술된 것이고 또한 母文明의 文化遺産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母文明의 言語를 子文明時代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득이 불가능하다. 즉 이미 死語가 되어버린 古典을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言語의 르네상스가 불가결한 선행업무로 보고 있다.

### 1. 言語·文藝的 르네상스의 3단계 (20)

(1) 제1단계 : 亡失된 古典의 回收 및 수집  
母文明이 사멸해 간동안에 亡失된 古典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to retrieve the dead literature's remains...)이 과정은 한 個人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

(18) Toynbee. 前掲書. pp. 3~4.

(19) 이 양기. 前掲書. p. 172.

(20) Toynbee. 前掲書. p. 52.

기 보다는 집단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 제2단계 : 수집된 古典의 解釋·批判과 辭典類의 편찬

수집된 文獻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를 주석 비판하는 단계이다. (…to remaster their meaning). 즉 古典에 精通하는 단계다. 이는 母文明의 言語는 死語가 되었으며 이를위해 理解가 가능한 해석 및 주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辭典類 및 百科全書類의 出刊을 보게 된다.

(3) 제3단계 : 古典文의 復活—模作文章의 作成

古典을 재현하려고 古典을 본받아 모조품 형식으로 재생하는 단계이다. (…to produce them in counterfeits…).

이상 3단계에서 제1단계와 제2단계에 있어서 기록된 문예의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업적은 제왕들의 발기에 따라 학자들이 수집하여 엮은 名詩選集, 辭典類, 百科全書, 全集 등이 남겨져 있다. <sup>(21)</sup>

죽어버린 古典作品을 수집하여 편찬하며 주석하며 간행하는 개척사업에 헌신한 황제들은 토인비에 의하면 앗시리아 왕 앗술바니팔(Assurbanipal), 東로마제국의 황제 콘스탄틴 7세 포르피로게니투스(Constantine VII Porphyrogenitus), 中國 明朝의 永樂帝, 淸朝의 康熙帝 및 乾隆帝를 들고있다. 이들은 다같이 정치적 면에서 그 自體 르네상스의 산물이었던 「부활된 세계국가」의 지배자들이 였다. <sup>(22)</sup> 그 중국의 고전의 방대한 수집은 영락제, 강희제, 건륭제의 후원 밑에서 이루어 졌고, 東 Roma 황제 콘스탄티누스 포르피로게니투스의 업적은 중국의 것과는 규모로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헬레니즘文化의 고전수집 그리고 분류한 점은 상당한 학문적 업적이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집된 作品의 내용물이나 해석을 위한 보완작업에도 中國을 우중할 수 없지만, 문예의 르네상스 운동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인 模作文章 작업에는 비잔틴 역사가에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sup>(23)</sup>

(21) 姜基哲역. 圖說, 歷史의 研究. 一志社, 1978. p. 631.

(22) Toynbee. 前揭書. p. 53.

姜基哲역. 圖說, 歷史의 研究. 一志社, 1978. p. 631.

(23) 前揭書. p. 632.

## 2. 中國文明에 있어서의 도서 수집운동

토인비가 지적한 중국의 뛰어난 문예적 르네상스의 대표적 人物을 永樂帝와 康熙, 乾隆을 들고있다. 다음에는 이들 각 帝王들의 學問的인 업적을 토대로 토인비의 문예적 르네상스理論에 따라서 전개해 보고자 한다.

## (1) 永樂帝(成祖 재위 1402~1424)

明朝의 성립은 漢民族의 독립과 동시에 그의 固有한 文化회복을 의미한다. (24) 영락제는 영락3년(1405)에 야심적인 대규모의 편찬 작업을 벌여서 8년이란 세월이 걸려서 완성된 中國최대의 類書 즉 永樂大典을 편찬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 동원된 한림원의 學者는 2,200여명이며 完成된 책권수는 22,878권, 11,095책으로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天下의 책을 모아서 主題別로 배열한 일종의 대백과사전 이었다. 이는 당초에는 한질만 만들었던 (25) 것을 1562년에(明朝 第11대 황제 世宗) 副本을 만들었으나 아깝게도 正本은 明末에 병란에 불타없어졌고 부분은 淸에 인계되어 보존되어있다가 1860년 英佛연합군이 北京에 침입했을때 산산히 허트져 지금 현존하고 있는것은 720권이다. (26)

이처럼 영락제는 天下에 흩어져 있는 類書を 수집하여 편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락(13년) 1415년 유교경전의 주석과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學者들을 동원하여 그의 칙령에 의하여 四書大全, 五經大全, 그리고 性理大全을 간행하여 地方學校에 보급시켰다. 이것은 일종의 국정교과서로서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經說로서 全部 이에 의거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八股文이란 것이 있어서 모든 表現을 이 일정한 (27) 文體의 格式에 따라 작성하게 하므로서 自由로운 토론이나 思想表現을 단절시켰다.

이상 永樂帝의 文化的인 업적을 概觀해 볼때 토인비가 제시한 言語·文藝的인 르네상스의 3개의 단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4) 辛寧滿, 最新文化史新講, 創文閣, 1980, p. 257.

(25) 趙義尚監修, 갈라판大世界史, 正韓出版社, 1980, v. 9, p. 82.

(26) 前揭書, p. 83.

註: 四書五經 및 性理大會: 漢唐宋이래의 諸儒들이 註解한 經書를 종합 편찬한 明朝의 官選書.

(27) 八股文: 과거의 답안을 쓸때 사용하는 독특한 文體로서 일정한 엄격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 辛寧滿, 前揭書, p. 257, 참조.

그의 父王 洪武帝가 天下를 통일하자 바로 民間에 흩어져있는 書籍들을 모이게 하여 類書편집을 착수시켰으나 중도에 世上을 떠났다. 영락제는 즉위하자마자 다시 편집을 지휘 1403년 文獻大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으나 너무 조급하게 만든탓으로 불비한 것이 發見되어 1405~1408가 재편집 完成하여 영락大典이라 개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을 토인비의 삼단계의 理論에 첫단계의 과정이라 지목할 수 있고 1415년 영락(3년)에 유교경전의 주석과 해설을 통일하기 위하여 學者를 동원 四書大全(논어, 맹자, 증용, 대학)과 五經大全(시경, 서평, 주역, 예기, 춘추) 그리고 性聖大全등을 편찬한 사항을 토인비의 제2단계로, 그리고 八股文이 성행하여 자유로운 사상표현이 통제는 되었으나 엄격한 서식에 의한 古典의 模倣은 토인비가 주장한 第3의 단계인 古典文의 復活 즉 模倣文章의 作成의 단계로 볼 수 있다.

永樂帝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文化的인 사업을 통하여 人民의 生活向上과 教育의 보급에 힘쓰며 학술문예의 진흥에 주력하여 文化的인 黃金時期를 초래하였다. 또한 그에 의해서 편찬된 儒經의 註解書는 각판에 있어서도 화려한 北宋板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며 그 字劃의 刀刻이 정교할뿐 아니라 表紙裝飾 등에 이르기 까지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다.<sup>(28)</sup> 이 永樂板本은 우리나라 世宗이 王位에 오르면서 地方官서의 啓請에 따라 많이 번각하여 널리 이용되었으며 한국의 古印刷術 및 古典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 (2) 康熙帝

清朝의 第4代 황제(재위 1662~1722) 聖祖 康熙帝는 學問을 사랑하였으며 많은 書籍을 칙찬하여 學問과 예술의 發達을 촉진시켰다. 그는 강인한 체력으로 자기수양에 힘쓰면서 종내 피를 토하면서 四書五經은 문본 西洋신부로부터 기하, 天文學도 연구했다. 朱子學徒를 자처한 강희제는 실권과 아울러 朱子의 참된 가르침을 탐구하기 위하여 古典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뜻을 옳바로 해석하는데 고심했다. 그의 예찬의 글이 유럽

(28) 金斗鍾, 韓國古印刷文化史, 三星美術文化財團, 1980, p. 107.

에 퍼진것은 프랑스 신부 부베의 “강희전전” 때문이다. 신부 부베는 프랑스 투이 14세가 청나라 조정에 파견한 신부중의 한 사람이었다. 때문에 西洋學問을 즐기는 강희제의 요청을 받고 부베가 더욱 우수한 신부를 증원하려고 출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벨기 태생의 신부 페르비스트<sup>(29)</sup>는 전문학 수학 통계학등을 강의하였으며 천문관측기계의 사용법을 가르쳤다. 페르비스트는 유클리드의 “幾何原本”을 (滿州語)로 번역하여 강희제에게 바쳤다. 부베는 “기타원본”을 만주문 및 한문 번역본을 내었고 제르비용도 아르키메데스의 기하학과 실용이론기하학의 만주·한 역을 시도했다.<sup>(30)</sup>

강희제는 흠정률려정의(欽定律呂定義)를 간행했는데 그목적은 중국음악의 원칙인 12律呂에 對한 學說을 輯錄한 것이다. 또한 皇輿全覽圖를 제작하여 이 시대의 중국인의 우주관 즉 地球方形天動說<sup>(31)</sup>로 부터 신부들의 소개로 球體天動說을 알았고 大帝國판도의 實則圖를 작성, 만주, 몽고, 중국본토의 실지 답사를 하고 천체를 관찰하여 경위도를 정하고 三角測量에 의하여 토지의 광 협을 재었는데 이지도를 “황여전람도”라 명명했다.

주자학의 신봉자였던 熙帝는 그의 學問的인 실천을 朱子의 說인 진실을 추구하기위한 古典존중과 또한 이의 理解를 위한 意味의 정당한 해석에도 힘을 기울였다.<sup>(32)</sup> 이를 위하여 편찬한 康熙字典을 비롯한 여러가지 辭典類 및 解說畵의 편찬은 다음과 같다.

佩文韻府(패문운부) : 171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張玉書등이 康熙帝의 칙령에 의해 편찬한 대규모의 속어사전이다. 이는 詩文을 지을때 필수불가결한 어휘 색인 일뿐만 아니라 古典語를 찾는에 색인구실도 한다.<sup>(33)</sup>

康熙字典 : 강희제의 칙령으로 역시 張玉書등에 의하여 패문운부가 완성된 1711년 부터 착수 5년에 걸쳐서 완성된 淸朝의 가장 완비된 漢字字典(전 44

(29) 大世界の 歷史, 三省出版社, 1982, v. 7, p. 391.

(30) 前掲書, p. 391.

(31) 지구는 바다에 둘러싸인 방형의 상자모양으로서 그둘레를 태양과 달을 포함한 우주가 회전하고 있어 이때문에 지구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떠있다는 說(前掲書, p. 392).

(32) 上掲書, p. 394.

(33) 稽義高갑수, 前掲書, p. 256.

권 가운데 본문은 12集, 集마다 3권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119의 部首를 설정, 자획수의 차례로 40,545字를 수록하였다.<sup>(34)</sup> 字體, 字義, 字音의 엄밀한 결정과 고전에서의 용례의 풍부한 인용은 최근까지도 가장 완비된 字書로 유명하다).

聯字類編 : 1726년 편찬조직, 총 240권으로 출판된 일종의 用語索引集.<sup>(35)</sup>

淵鑑類函 : 강의의 백과사전. 1710년 편찬<sup>(36)</sup>

이상과 같은 康熙의 업적을 살펴보면 역시 古典수집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이해하고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字典類의 편찬에 관한 업적은 뚜렷하다. 즉 토인비가 역설한 르네상스의 第 1단계의 과정은 역역히 나타나 있으나 3단계인 模作을 통한 古典의 復活에 對한 과정은 앞서 永樂帝의 경우처럼 그렇게 뚜렷한 재시는 없다.

그러나 중국學問의 근본주류가 漢나라 이래 淸朝에 이르기까지 경학(經學)이다. 즉 四書五經을 밝히고 그것을 現實政治에 살리는 것이 그 주목적이었다. 강희제에게는 洋學과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의 정확성과 그 전체에 입각한 주지주의(主知主義)가 보이며 또 실용주의도 發見된다.<sup>(37)</sup> 그러나 이치를 현란하던 淸朝 초기의 學術, 思想界가 차차 외곶으로 考證學쪽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그래서 강희제때는 그자체 模作品 생산에 힘쓰기 보다는 오히려 考證의 인 고전연구에 몰두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한 例는 강희시대의 열약거(1639~1704)는 書經의 한 텍스트인 古文尙書를 연구하여 그중 25권이 東晉때에 만들어진 完全한 가짜임을 증명한적도 있다. 이의 연구방법은 우선 가장 정확한 텍스트를 선정하여 그 글씨 한자, 글귀 한구절에 이르기까지 본래의 정확한 뜻을 文獻上的 근거로 소상히 밝히고 추구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sup>(38)</sup>

### (3) 乾隆帝<sup>(39)</sup>

(34) 前掲書.

(35) Toynbee, 前掲書, p. 8.

(36) 上掲書, p. 57, (Kang Hsi's dictrionang of Universal Ref), 토인비, 歷史의 研究, 東西文化院, 1975. (한국어판) v. 10, p. 330.

(37) 大世界の 歷史, 前掲書, p. 394.

(38) 趙義高, 前掲書, p. 376.

(39) 乾隆帝 : 1711—1799. 재위(1735—1795). 淸朝 第6代 황제 高宗.



강희제의 뒤를 이어 옹정제가 淸朝의 第5代 皇帝로 즉위하고 옹진 13년에 그가 즉자 第四皇子 寶親王 弘曆이 즉위하니 그가 高宗으로 乾隆帝이다. 그의 조부 강희제가 哲學에 의한 聖王政治를 지향한데 반해 옹정제는 강희제의 朱子學의인 治世가 漢人들의 버릇만 굳혀주고 조정의 질서가 문란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옹립마저 희생해가면서 독재권을 움켜쥐고 地方行政에 根本的인 개혁을 가해서 滿州人, 漢人, 그리고 몽고인의 三民族의 유기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했다. 이처럼 건륭의 父王 옹정제가 平等主義를 信念으로 군림한데 비해 건륭제는 文學에 의한 영광과 情感의 世界를 충족시켰다.

그는 先帝들의 가혹한 이상주의와 병엄한 금욕주의를 풍요로 만끽하는 향락주의로 변질시켰으며 이는 그의 10만수가 넘는 詩와 歷史에 대한 취미가 그것을 證明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정감의 세계는 결코 향락주의나 방종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政務와 詩作에 몰두할 수 있었고 古典에 對한 그의 지식과 語學力도 대단하였다.

#### 四庫全書：

乾隆帝는 풍부한 제정에 힘입어 큰 文化的인 업적을 많이 남겼다. 특히 서적편찬과 간행은 건륭제의 명령으로 진전되어 中國歷史上 가장 규모가 방대한 고전전집의 편찬작업이 착수되었다. 그 이전에도 전술한것 처럼 康熙字典의 한자字典과 옹정제에 동팔자로 인쇄된 古書圖書集成<sup>(40)</sup>과 같은 일종의 백과사전이 있었지만 건륭의 사고전서에는 미치지 못한다.

四庫는 經(유교), 史(역사), 子(思想), 集(文學)의 四部를 말하며 건륭 37년(1772)에 제왕의 칙령으로 시작, 건륭 53년(1788)에 완성될때까지 16년이란 세월이 소요되었고 四庫館에서 편집업무에 종사한 人員만도 4303명에 달했다. 四庫館에 著錄된 책은 6819種이며 권수는 94034권이며 總目중에 書名만 있는 것까지 합하면 10,289種, 173,052권으로 原著作者수가 약 7,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편집작업이 끝나고 各部를 36,000책으로 나누어 장정하여 正 副本 八部를

(40) 古書圖書集成：1만권 5천책에 사항별로 古書의 文獻을 망라한 일종의 백과사전.

作成하였으니 그 책수가 모두 288,000책에 달하였고 “四庫全書提要” 二部 24,000책 까지 합하면 총계 312,000책, 이것을 모두 손으로 썼으니 그 作業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經·史·子·集의各部마다 색깔이 다른 표지를 붙여 北京宮城, 圓明園, 奉天宮殿, 熱河離宮의 4庫에 보관하였다.

수집에 있어서도 그는 個人장서를 地方官에게 빌려주도록 하여, 500部이상 제출한 個人에게는 古書圖書集成을 하사하고 100부 이상의 개인은 그 이름을 解題속에 넣었다.

건륭제가 各省과 州縣에 進書와 헌서를 시달한 유지 가운데 과거의 文子獄을 기억하고 禁書類를 내놓지 못함을 알고 여러차례 명령하여 숨기지 말고 헌납할 것을 타이론 내용이 발견되고 있다. 그는 文獻수집에서 宋代의 鄭樵가 제시한 여덟가지의 求書之道<sup>(41)</sup> 못지않은 건륭의 한족 지식인을 상대로한 文化政策이 잘 알려져 있다. 丁甲의 武林장서록 卷上 浙江採集遺書修<sup>(42)</sup>에 보던 건륭 38년 3월 초 7일 임금님의 諭示를 받는다. 江浙은 人文의 淵로서 그 流傳이 다른 省에 비하여 많을 것이니 이를 搜索할수만 있다면 좋은 책도 접차 많이 건울수 있을 것이다. 듣건대 東南方에는 전부터 많은 장서를 가진 사람으로 崑居 徐氏의 傳是樓, 常熱趙氏의 小山堂, ...이 이름나 있고... 그리하여 某處에 某書가 있고 누가 언제 某本을 샀다는 것 까지 잘알고 있다. 이들에게 잘 물어서 物色하고 또 여기 저기서 빌려서 베끼고 原書는 빠른시일내에 돌려주면 모두 응할것이다. ...책 가운데 忌諱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어도 무방하다. 이제 諭旨에도 밝혔으니 進獻함에 있어 그 가운데 妄誕스런 文句가 있어 그대로 남겨서 後學을 貽惑하여서는 안될 것이면 그 책을 패기하여 버리고...그런책을 보존할게 없느니라고 말하면 그뿐...이라는 내용을 미루어 보아서 수집方法的 치밀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자료는 四庫全書편집 기간동안 무려 24회에 걸쳐 총 538종 13,000여 권의 책이 焚燬되었고 또한 四庫全書내 著錄된 책가운데서도

(41) 李炳漢. “四庫全書와 民族感情,” 書誌學, 第四號. pp. 23~24.

(42) 上揭書, p. 27.

四庫館의 편집자 손에 의해서 왜곡된 책도 상당수에 달하므로 혹평하는 자의 말을 빌면 秦始皇의 焚書坑儒보다 더 포악한 것으로 평하는 자도 있다.

건륭의 이와같은 획기적인 文化事業의 동기는 當代에 이복한다는 영웅심도 작용했겠으나 表面的인 이유는 前代의 遺書를 탐구하는 것이지만 그 보다 깊은 뜻은 만주족인 淸朝가 漢人의 反淸 思想을 뿌리뽑고 또한 많은 漢人 지식인들로 하여금 그 작업에 참여시켜 그들의 政治에 대한 關心을 本來의 學者의 生理인 저술生活에 묶어 두려는 양면적인 정책울 의도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건륭을 주축으로 한 淸朝의 學者들의 업적은 토인비의 르네상스의 1, 2, 단계의 과정을 모두 절실하게 이룩하였고 또한 토인비의 理論에 의한 母文明의 「亡靈의 초혼」의 現象이라고 볼 수 있는 前代文明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淸朝초기의 學風을 考證學으로 빠지게 하고 말았다. 건륭은 中國 역사상 가장 文運이 흥왕하던 시대로 혹은 考證이 멋지게 결실을 보인 시대로 보나 반면에 그것은 앞서간 先祖들의 넓고 창조적이던 정신을 저버린 댓가로 얻어진 것이다. 明末에서 淸朝초엽에 걸쳐 다양하던 가능성은 거의 꽃피지 못한 채 시들어버리고, 學者들은 오로지 古典과 古文獻에 파묻혀 考證을 위한 考證에 빠져 考證學의 실증주의적 정신은 종래 文獻主義에 그쳤고 말았다.

### 3. 古代東方世界와 비잔틴 文明에 있어서의 도서수집 운동

토인비는 西洋의 두 특출한 文藝的 르네상스의 人物로 Assyria 왕 Assurbanipal 과 비잔틴제국황제 콘스탄틴 7세 Porphyrogenitus 를 두고있다.

Assurbanipal 王(BC668~626)은 앗시리아의 Sargonid 大王朝에 속한다. 그는 Sargon II 세(재위 BC722~705)가 수립한 Assyria 王朝이며 그 뒤를 이은 諸王은 Sennacherib(BC705~681), Esarhaddon(BC681~669), 그다음이 Assurbanipal 이다. (44)

(44) Hessel, A. trans. by Peiss. R. History of Libraries. Scarecrow Press, 1955. 한국판: 이춘희역. 1968. p.134.

앗슈르바니팔 父王 Esarhaddon 은 그의 아들 앗슈르바니팔을 앗시리아 王으로 그리고 그의 兄 사마쉬·슘, 우킨을 바비로니아王으로 그의 생전에 선임하였다. 이 조치는 제국내에 점점 비중을 더하고 있던 바비로니아 주민의 감정을, 그들에게 일종의 주권을 부여함으로써 무마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父王의 의도와는 반대로 反앗시리아 운동으로 전개되어 그의 兄 슘, 우킨은 기원전 648년 마칠내 바빌론 정내에 포위되어 극심한 기아상태에서 궁전에 불을질러 스스로 분사하는 불운아였다. (46)

앗슈르바이팔은 그의 父王 에사르하돈의 이집트 정복의 대업을 이어 받아 탄남을 무릅쓰고 제승하러 하였다. 그는 BC667년에 상이집트 수도 테베에까지 침공하였고 BC663년에는 멤피스를 공격 테베를 멸하였다. 이때 재잡 앗시리아군의 무서움을 제인식 시켰고 고대 세계에 부유와 강성으로 알려진 테베의 약탈은 전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앗시리아에서 멀리 2500km나 떨어진 부강한 나라 에집트를 끝내 영속적인 지배는 불가능하였다. (46)

앗슈르바니팔은 정복자로서 그 잔학성으로도 유명하지만 學問을 사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古代에서 가장 위대한 圖書館을 수도 니네베(Nineveh)에 건립하였고 장서수집에 노력하였다. 그는 일단 王位에 오르자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 文獻의 體系的인 수집에 착수하였다.

앗슈르바니팔은 그의 신하들을 페르샤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앗시리아 全 국토에 파견하여 모든 주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게 하였다. (47) 그는 또한 슈메르, 앗카드 시대 이래 2천년에 걸치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각종 古文獻을 모아 점토판에 손으로 베껴서 보존하였으며 (48), 바빌로니아 및 앗시리아의 오랜신전에 서기를 파견하여 사본을 만들고 또 조상전래의 옛기록을 가진 個人에게도 사본을 만들게 하였다. (49)

(45) 趙養典, 前掲書, pp. 262~363.

(46) 上掲書, p. 365.

(47) Johnson, E. D. and Harries, M. History of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The Scarecrow Press, 1976, p. 19.

(48) 大世界史, 前掲書, p. 139.

(49) 大世界史, 上掲書, p. 365.

앗슈르바니팔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이 점토판위에 기록된 것을 고고학자가 발견하였다. 내용에 의하면 앗슈르바니팔王이 그의 신 하에게 보내는 서한으로서 :

“샤두니(Shadum)에게 보내는 王의 글 : 짐은 무고하다. 그래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 내가 세사람을 보내노니 점토판을 탐색하라. 모든 家內 및 寺院에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짐의 장소에 유익 한 것이라면 찾아서 입수해서 짐에게로 보내도록 하라. (50)

고 기록되고 있다.

Assurbanipal 王은 古典을 해독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는데 이는 필경사로 하여금 초기 슈메르語와 바비로니아語로 된 文獻을 앗시리아語로 해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한데 있다. (51) 그는 20명 혹은 그 이상의 필경사와 서기들을 고용하였으며 (52) 이들에게 근면과 정확한 필사를 강조하는 동 용의 주도한 지시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내용은 주로 연대기 公文書, 書簡文, 宗教書를 비롯해서 文法, 詩, 歷史, 科學등이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실은 초기 설형문자의 辭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미 수백년간 보존되어온 점토판을 번역하고 필사하는 도구로 삼기위함이었다. (53)

앗슈르바니팔 도서관은 그의 성안여러실에 주제에 따라 배열되어 있었다. 예를들면 한실에 보관된 점토판은 주로 歷史, 정부에 관한 내용이었고 동시에 속국에 관한 법칙, 관리들의 전기, 王의 명단 등이었다. 같은실에 이웃나라들에 관한 정보와 기타 外國의 外交官들과의 서신이 배열되어 있었다. 이 도서관 전체 점토판수 약 3단계내에는 적어도 1만여개의 相異한 作品이 소장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그중에 많은 내용은 非 앗시리아語로 된 필사본이나 번역물들이었는데 이것들은 그들의 先祖들이 제

(50) Rider, A. D. A Story of Books and Libraries. Chicago Univ. Press, 1976. p. 39.

(51) Johnson, 前揭書. p. 19.

(52) Johnson, E. D. Communication. The Scarecrow Press, N. Y. 1960. p. 22.

(53) 上揭書. p. 23.

꼭이나 이웃나라들로 부터 발췌해온것으로 보인다.

앗슈르바니탈왕은 그의 이와같은 노력에 대단한 공지를 가졌다. 그가 남긴 비문의 내용에는<sup>(54)</sup> :

「나는 Nabu(나브神—앗시리아文字의 神)의 지혜, 즉 점토판에 문자를 기록하는 완전한 기술을 배웠다. 나는 현명한 아라바(神—禱道の 神)의 계시, 즉 그의 秘傳을 받았다. 나는 슈메르의 아름다운 점토판, 및 앗카드의 난해한 文字를 읽었다. 나는 大洪水時代 이전부터 기록되어 내려는 石文을 해독할 수 있다.<sup>(55)</sup>

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가 남긴 印章에는 그의 神 Nabu 에게 기원을 한 다음

“나는 이 점토판을 수집했고, 나는 이 점토판의 사본을 만들게 했고, 나는 그위에 내이름을 새겨서 성안에 보관하노라.

는 내용을 남겼다.

그의 이와같은 公式的인 印章의 내용을 미루어보아 그의 臣下들에 대한 지시내용도 알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또한 집서의 내용을 통제하거나 검열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의 필경사적 사서였던 한사람이 남긴 기록에 보면 “나는 王에게 호감을 주는 자료는 비치하였으나 그렇지 못한것은 도서관으로부터 배제하였다<sup>(56)</sup>”고 한 기록도 있다.

이상 밝힌 古代東方의 Assyria 의 王의 업적을 토인비의 르네상스의 3단계를 적용해볼 때 母文明에 對한 수집과정은 中國의 明清朝에 못지않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ssurbanipal 는 슈메르, 악카드 시대 이래 2000년에 걸치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와 文化를 기록한 각종 古文獻 수집은 토인비가 설파하는 「時間的인 次元에서의 文明의 만남」이라는 명제를 다시 제설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각종 古典文獻이 점토판위에 설형문자로 복사 보존한 것은 토인비의 르네상스 제 1.2. 단계

(54) Johnson and Harries. 前掲書. p.20.

(55) Hessel. 前掲書. p.2. 大世界史. 前掲書. p.365.

(56) Johnson and Harris. 前掲書. p.21.

의 과정이며 특히 중요한 사실은 사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中國의 辭典類가 편찬된 것과 같은 理由이며 번역, 해석의 第2단계가 뚜렷이 부각되어 지고있다. 그리고 필경사로 하여금 초기 슈멜語, 바비로니語를 해독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古典을 Assyria 語로 해독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古典의 復活을 하였지만 模作品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다. 다만 기록은 통한 사적의 전달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하였다고 하나 中國 永樂帝와 같은 적극적인 模作文章의 필요성보다는 古典 수집, 필사에 더 많은 필요성을 안고 있었는것 같다.

## (2) 콘스탄티누스 7세(재위 913~957)

圖書館史를 비롯해서 기타 圖書館學과 關係있는 諸文獻에는 비잔틴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7세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하지만 토인비가 구태여 콘스탄틴 7세, 프로피로게니트스를 史上 뛰어난 文藝的 르네상스의 대표적 人物로 지칭했는가에 대한 회의도 있지만 그의 저서 "Constantine. Porphyrogenitus and His World"의 서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것은 그의 母親이 그에게 선사한 "De Administrando Imperio"(제국의 행정)의 要約書(Bury著)를 읽고난 후 10세기 당시의 世界를 콘스탄티노플로 부터 관망한 것이 그에게는 '파노라마'와 같은 흥분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그의 해박한 古典라틴語와 회랍語의 실력은 그때까지만 해도 별 關心의 對象이 되지못하였든 콘스탄틴 7세의 업적을 추적가능케 한것이라 짐작된다.

本章에서는 Porphyrogenitus의 작품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콘스탄틴 7세는 54세의 단명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더 많은 창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의 칙령에 의해서 진작되고 편집, 편찬한 저서의 수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프로피로게니투스가 생각하고 주관하여 창작한 비잔틴 學者의 집합적인 사업은 中國의 建隆제나 영락제의 거대한 사업에 비하면 보잘것 없다. 때문에 지적 노동자의 노동을 지휘하고 조직하는 文學的 産業의 지도자(captain of literary industry)<sup>(57)</sup>로서의

(57) Toynbee, 前掲書, p. 57.

역할보다는 독창적인 작품의 저자로서의 그의 위치가 더 위대함을 알 수 있다.

그의 主要著書는

① An Historical Narration of the Life and Acts of the Emperor Basil of Glorious Memory: (바실레우스 황제의 생애와 행동에 대한 역사적 설화)

② The Administration of the Empire(제국의 행정)

③ The Army Corps Districts appertaining to the Empire of the Romans and the Origins and Ethymologies of their names. (로마제국에 부속된 군단군과 그 이름의 기원)

④ An Exposition and Outline of the Imperial Rules and Regulations. (제국의 법규와 규칙의 해설과 윤곽)—近代 西歐學者들은 De Caerimomiis Aulae Byzantinae 즉 비잔틴궁정의 의식에 關한書라 한다.

이상 그가 직접 창작한것 이외도 편찬조성을 한것은 “Geoponica”(10세기 회람의 농업 백과사전) 그리고 회람文學에서 발췌한 53권의 圖書를 주제별로 배열시킨것이 있으며 확인된 제목만을 열거하면<sup>(58)</sup>

◦ Diplomatic Missions. Virtues and Vices(외교단의 미덕과 악덕)

◦ Sententious Sayings(금언)

◦ Conspiracies Against Sovereign Princes(君主에 對한 음모)

等이다. 그는 古典學者이며 儀典에 대한 깊은 關心과 地理學者였고 歷史에 對해서는 상당한 關心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歷史에 對한 關心은 그의 祖父 Basil I 세 이후부터이며 그이전의 역사 즉 로마제국에 대해서는 별흥미를 가지지 않았다.<sup>(59)</sup>

콘스탄틴 7세 프로피로게니트스는 學者的인 기질을 가진 황제이면서도 또한 황제이기 때문에 學問의 실용성을 추구하는 정신을 가졌다. 그의 모든 文

註 Basil I: Constantine 7세의 祖父이다 마케도니아朝의 창시자 Basilius I.

(58) 上揭書, p. 56.

(59) Toynbee, Constantine VII, 上揭書, p. 579.



學活動은 실용적인 目的을 지녀야만 했다. 그가 평생을 통해서 최대의 관심을 가졌든 회람文學의 古典도 그가 발췌한 53권의 방대한 原典에서 量的으로 취급율이 하도록 축소한 것도 그한 理由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도 존존하고 있는 “Embassies”(大使)와 “Vitures and Vices”(善과 惡)의 두 주제도 정치가들을 위한다는 실질적인 目的을 가지고 선택한 것으로 지목된다.<sup>(60)</sup>

그의 著書 De Caerimoniis(儀典書)도 그 일반적인 目的은 궁정에서 거행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儀典法과 동시에 皇帝로서의 권위를 해의에 과시하는 目的과 또한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한 실용적인 目的이 담겨있다. 그 내용은 그의 아들에게 東로마 법정의 에티켓에 대한 비법을 지킬것을 명령하고 제국의 各제국마다 자기 다른 예법과 접대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의복의 모양, 색깔, 제스츄어, 신하와 왕과의 면담, 장소, 시간 거리등등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다.

De Administrando Imperio(제국의 行政論)은 (本來 이 著書에는 書名이 없었고 그의 아들 Rhomanos 2세에게 헌정한 기록만이 있다) 地名사건으로 편찬하기로 始作하였으나 편찬도중 그 특성을 변경, 제국의 주변국가의 해설을 완성하는 대신, 그 이웃국가들과의 交易에 관한 지시사항으로 변경되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봉헌하기로 되어있는 그의 아들 Rhomanos(로마노스) 2세가 14세 되던해이므로 이를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sup>(61)</sup>

Theophanes Continuatus (Book I—IV)는 최초로 Genesis에게 편찬 명령하고 그 내용이 自己의 의도와 맞지 않았을때 익명의 저자로 하여금 1권에서 4권까지 修正시켰는데 그 自身이 익명의 저자가 되어 修正한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5권 Thophanes Continuatus V.는 Basil I세의 전기로서 스스로 著서하여 제5권으로 삽입하였다.

이와같은 行爲의 主目的은 祖父 Basil I세로부터 自己自身에게 이어지는 모든 歷史적인 眞실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 첫째 목적은 Basil I세가 비천

(60) 上揭書. p. 581.

(61) 上揭書. p. 582.

한 신분출신이란 것과 그의 교육의 결핍을 은폐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특히 自身の 이야기 部分에서 Caeser Vardhas와 황제 Michael 3세의 암살을 숨기기 위함이었다.

#### Ⅳ. 結 論

토인비가 歷史上 나타난 文藝的 르네상스의 대표적 人物로 지칭한 다섯 皇帝들의 圖書를 중심으로한 文化的인 업적을 그의 르네상스의 3단계의 과정에 따라서 밝혀보았다. 이들 다섯 皇帝들이 수집, 편찬 및 模作品 生産에 關한 3단계 과정은 비록 이들 皇帝들이 本人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토인비의 文明論的인 관찰에 의한 結果에 따르면 이상과 같은 3단계의 현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다섯 皇帝들은 다같이 政治面에서 그 自體르네상스의 產物인 “부활된 世界國家의 지배자”들이다.

때문에 子文明에서 여러가지 대결에서 그 보책이 궁한 나머지 母文明의 도움을 청해서 子文明의 위기 극복을 시도한 歷史性을 이상의 여러가지 學問分野 특히 言語·文藝的 르네상스를 통해서 비연속적인 연속으로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이는 子文明이 母文明의 亡靈을 초혼해서 “時間的 次元에서의 단남”이란 現象이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

이처럼 政治的인 면에서 “부활한 세계국가의 지배자”들이인 다섯 皇帝의 文藝的 르네상스를 통해서 얻어진 共通點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제왕들의 學問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호사상이 있었고 古典을 탐색 수집한다는 表面的인 理由

2) 異民族에 對한 文化的 회유책으로서의 政治的인 의도가 강하다는점

3) 제왕들의 권위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방대한점

4) 王權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있어 내용의 왜곡, 개정, 말살등 결함이 성했다는 점

5) 母, 子, 두 文明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내포하는 복합화현상의 역사가 있

어야 하는 점

6) 母文明에 對한 지나친 집착으로 古典에 의한 模倣文章에만 치우친 나머지 창조적인 文學活動이 침체되고 考證主義의인 學風으로 변모하는 동시에 고유의 토착문화에 대한 발아상태가 지연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特別히 模倣作品에 의한 古典文의 復活運動에 대해서 토인비는 르네상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토착문화의 풍요로운 창조가 나타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는 中國文明에 있어서 당나라 퇴종때 부터 시작한 과거제도(622년)가 清朝가 멸망한 1905년까지 약 1285년간을 古典文體에 의한 文章이 문과지망자인 유생들에 의해서 수없이 생산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中國과 비잔틴을 비롯한 이들 다섯 皇帝의 문예적 르네상스의 성공은 결국 母文明의 망령의 영향으로 부터 헤어나지 못한 結果이며 따라서 創造力은 상실되고 그 중압이 영속되어 文化의 침체와 化石化한 경직된 文化現象을 초래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부활한 「世界國家」의 다섯 皇帝들은 그들의 亡靈을 再生(政治的 르네상스) 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처럼 성공한 곳일수록 문예적 르네상스에 사로잡혀 古典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古典을 유지 계승하는 文化政策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 結果 王權의 힘에 의한 古典의 蒐集, 解釋, 模倣의 과정은 圖書館의 발현을 필연적인 歷史의 當爲로 結晶시켰고 결과적으로 이들 황제들이 圖書館 發展에 끼친 공헌은 至大하다 하겠다.

參考文獻은 각주로 대신함.

## A Theory of Toynbee's Civilization and History of Libraries

—his view of Renaissance and Book Collection Movement—

Son, Yeon ok\*

### 〈Abstract〉

In ordinary modern western expression 'the Renaissance' was used to denote the impact made by dead Hellenism civilization in western Christendom, particularly Italian literary and artistic movement at Northern and central Italy in the late medieval period.

However, A. J. Toynbee examined the renaissance from the different aspect of view. In his great work "A Study of History" in vol. IX, he succeeded in establishing the theory of historic civilization encounters in space and in time; and in time, civilization of the present and the past or between dead and infant successor contacts on the analogy of parenthood and sonship in the relation of Apparentation-and-Affiliation.

The distinguished his view of 'Renaissance' was illustrated in the sense of encounters between a grown-up civilization and the 'ghost' of its long-dead predecessor. The renaissances (by the process of evocation of ghost of its parent society) has not only one single aspect of literary and artistic field but also in politics, law, science and philosophy, languages and literatures and visual arts, and religion.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Social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them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libraries and its historical meaning through Toynbee's literary renaissance. His renaissance of Languages and Literatures has three typical steps: They are:

1st step—to retrieve the dead literature's remains:

2nd step—to remaster their meaning:

3rd step—to reproduce them in counterfeits...

Through its first and second steps, collecting and editing, annotating by compiling an anthology, thesaurus, lexicon or encyclopedia, and in its third step publishing mostly imitation of classics took place.

Toynbee depicted the five outstanding eminent representatives of literary renaissance who had appeared on the state of history down to the time of writing. They are: Assurbanipal, Constantine prophylagenitus, Yung Lo, K'ang Hsi, and Ch'ien Lung and the last four had all been emperors of *imperia rediviva*.

As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se five emperors with three steps of literary renaissance, the common resul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ose emperors of *imperia rediviva* interested in intellectual work and study, they also were deeply involved in collecting classics in an ostensible reason.
2. There were strong political intention of collecting materials as an appeasement policy of civilization by transferring scholars energies to an intellectual field.
3. Under the rulers of a resuscitated universal state, the literary renaissance were a product of political plane and that the total size of collection and work were huge.

4. Since there were strong exercise of sovereign power, an active censorship by distortion and elimination was inevitable.
5. There existed newly developed strained atmosphere between grown-up and long-dead parent civilization, whenever the book collection movement had occurred.
6. Over adhesion to the parent civilization caused imitation of classic work and the creative activities were stagnated.